

제5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연설

친애하는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제59주년 '경찰의 날' 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8·15광복과 함께 출범한 우리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가져오는 데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위로와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전국의 15만 경찰관 여러분,

그동안 우리 경찰은 부단한 자기혁신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경찰이란 오명은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친절한 경찰, 봉사하는 경찰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경찰 인사도 지연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 우대받는 원칙을 정착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우리 경찰에 대해 다시 한번 충심으로 치하를 보냅니다.

친애하는 경찰관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치안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 주기를 기대하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침해 범죄, 국민건강과 환경을 해치는 공익사범, 교통사고와 같은 생활 주변의 불안요인을 근절하는 데 더욱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국제 테러조직이 공공연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상경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또한 '인권이 존중되고 법·질서가 바로 선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인권과 법·질서 수호는 그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경찰의 기본 책무입니다. 불심검문에서부터 사건 수사, 범인 검거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경우에도 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용인되어 온 관행 중에서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은지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권력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 경찰은 정권의 손발 노릇을

하던 과거의 경찰이 아닙니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적대행위를 하거나 모욕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찰도 깨끗하고 투명한 경찰상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학습과 자기혁신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해질 때 공권력의 권위와 치안역량은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

우리 경찰은 지금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문제는 자율과 분권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 편익을 고려해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내년부터 시범 실시될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도 시민이 참여하고 통제하는 생활경찰이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요구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중한 격무로 인해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과로로 희생되는 일까지 있는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인력과 장비의 확충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경찰 인력의 연차적 증원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찰은 갈수록 흉포화되는 범죄로부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보상체계만 하더라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 오히려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상체계를 갖추도록 이미 지시해 두었습니다. 적어도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족까지 걱정해야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경찰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의 날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